

김기현, 민생현장 동분서주...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

(국민의힘 대표)

직접 현장 챙기며 정책 발굴나서 정부 뒷받침, 내년 총선 대비 풀이 당 지지율 상승세 지속 여부 귀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가족돌봄청년 간담회’에 앞서 사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대안을 발굴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민생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모습으로도 보인다.

김기현 당 대표는 가족 돌봄(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청년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미래세대와 소통 등 맞춤형 격주 1회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다.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민생 현장을 챙기면서 정책 발굴에 뛰어들었다.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 출범시킨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온라인 신문고에서 접수한 국민 건의 사항들을 논의한 뒤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할 계

획이다. 민생119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온라인 신문고에서 받은 제안 119건을 정리,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각 7

건), 출산·육아(3건) 등 순으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민생119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회의 당시 정리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 정책에 대해 5월 말까지 내부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당 정책위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책위

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김 대표는 10일 “정상 작동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저부터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인 이날 김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여당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 잘못된 점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엄중하게 새겨들겠다.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면서, 비정상적 국가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더욱 치열하게 개혁에 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당은 민생 행보와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기현 지도부가 서진 전략으로 당 지지율 반등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돌

아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원내 대책회의 때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 행보로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스시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39.4%, 더불어민주당은 30.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22~24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4.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3%포인트 내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민주당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회동

李 “국회 전 예산협의회” 洪 “달빛내륙고속철도 처리”

민주당 대표 대구시청 첫 방문 지역현안, 중앙정치 등 의견 나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15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에 온 일이 있다. 그때 무상급식 때문에 왔는데, 아마 경남도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대구시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전국 시도 17위인 지역내 총생산(GRDP)을 언급하면서 “대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인천에도 밀리고 있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를 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거의 본부를 하나 만들

었다. 광주와 대구 그리고 달빛철도를 통과하는 지역구의 의원과 이 대표가 금년 내 특별법이 올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역행한 것”이라며 “달빛내륙고속철도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거의 다 만들었다.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해서 처리해주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

거점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올해 안에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재차 말하자 이 대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럼 좋을 것이다.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내놓고 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니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들이 즉각 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 애들이 욕심만 가득했다.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있으니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당이 원래 그렇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두 사람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대구 식수원 문제 등을 논의하며 회동을 마쳤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산자부 2차관 강경성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58·사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강 신임 2차관은 서울 수도권전기공고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강 신임 2차관은 산자부에서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봉화광산 매몰 사고 당시 고립 22시간여 만에 생존한 광부들에게 부친이 광부였던 강 비서관을 직접 보내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회사무처 의정활동 데이터 개방 확대

국회사무처가 10일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연내 ‘열린국회정보포털’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정보, 의정활동 내용, 각종 보고서 및 발간물 정보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시행한 정보 공개 개방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회의록 등 의정 정보와 국회 소속기관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확대돼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익 기자

태영호 “모든 논란, 전적으로 제 책임... 최고위원직 사퇴”

“당, 정부, 대통령실에 큰 누 끼쳐 진심으로 사죄... 백의종군 할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동

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

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태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근 이진복 대통령실 정부수석비서관이 연루된 공천 녹취록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의

식한 듯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도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태 의원은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세계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